

장기화 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학생들 불만 증폭

# “차라리 반수·휴학”... 학생 이탈조짐에 대학들 ‘초긴장’

〈半修〉

서울권 대학들 온라인 강의 연장 한학기 전체 온라인 대체 진행도 등록금 비싼 실습위주 수업 불편 커 “유학생도 감소... 대학 위기감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2주로 예정됐던 온라인 강의 대체 기간이 일부 대학에서는 최대 1학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등록금 환불 요청은 물론이고, 반수나 군대 입대,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광운대·동덕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 서울권 대다수 대학이 앞선 온라인 강의 시행 일정에서 2주 추가 연장에 나섰다. KAIST, UNIST 등 일부 대학은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한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연세대에 신종 코로나19 관련 안내 현수막이 걸린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 대학이 준비 단계부터 콘텐츠 준비에 열을 올렸지만, 학생들의 불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개강이 연기되던 시기부터 시작된 등록금 반환 요청은 최근 더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실습 수업이 포함돼 다른 학과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예체능·이공계 학생들의 불만은 더하다. 실습 위주로 이뤄져야 하는 수업이 온라인으

로 대체되면서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데 불편도 크다. 서울권 여자대학에서 조소(彫塑)를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은 “전공 특성상 직접 보고 만들며 수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며 강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라며 “대면 강의 진행이 어려워 실습강의가 불가능하면 실습실 사용료 등 실습에 관련된 비용이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환불 가능성을 두고 학생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에 관한 학생 민원이 빗발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환불에 부정적 입장인데, 총학은 도대체 뭐하냐며 일부 학생들이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 입장을 대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반수나 휴학, 군대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도 적지 않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이 지난달 진행한 ‘코로나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대학생 100명 중 5명이 군 입대 일정 변경을 고려했다.

대학에 적을 두고 다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수험생들이 주로 찾는 대입 정보 카페 ‘수만회’에는 반수를 고민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개강 연기

로 이전과 다르게 1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대학이 생기면서 반수를 하려는 대학생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대학에 휴학 문의, 학원에는 반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불만과 등록금 환불 주장에 대학은 곤란하다. 경기권 대학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관련 문의가 증가해 대학 홈페이지 내 코로나 19 관련 공지와 문의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놓을 정도”라면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문의와 불만이 크게 늘어 ‘등록금 환불 규정’ 중 환불 금액 산정 기간을 기존보다 2주 늘리는 방안으로 학생들을 고려해 주기로 했지만, 이를 게시판에 알리지 학생들 문의가 급증해 오히려 게시글을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서울권 대학 관계자도 “코로나 19로 이번 학기를 등록한 유학생 수도 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학생들의 휴학 문의도 늘어, 대학 재정 악화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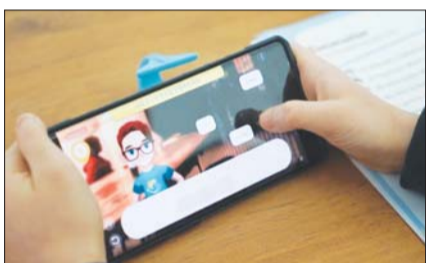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공부, 게임처럼 즐겁게”... FUN한 교육앱 ‘속속’

코로나에 개학 연기사태 장기화 집콕육아에 맞춰 흥미요소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온종일 주로 집에만 머무는 아이와 부모를 겨냥한 교육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하루 종일 어린 자녀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 육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게임처럼 즐기며 공부도 할 수 있는 교육앱이 눈길을 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의 ‘스피킹버스’는 기초 회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영어 말하기 앱이다.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롤플레이 게임처럼 흥미 요소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사용자는 가상 공간 마을을 탐



윤선생 스피킹버스 앱 /윤선생

험하며 다양한 원어민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캐릭터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다. ‘토도수학’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교육과정을 담은 학습 앱이다. 게임 형식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지루할 틈 없는 인터랙티브한 2000여 가지 수학 활동을 제공한다.

‘소중환글’은 국내 최초 일반 한글 교육법 보다 3배 효과가 높은 ‘소리 중심 교육법’을 적용한 한글 교육 앱이다. 소리 중심 교육 원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교육 게임을 활용해, 한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레고 듀플로 월드’는 레고그룹이 최근 선보인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 교육 앱이다. 아이들이 3D 입체 듀플로 브릭을 활용하면 조립, 탐구, 역할놀이 등 3가지 유형의 창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앱은 숫자와 기차놀이, 세계 동물 탐험, 구조 모험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각 테마별 기초수학 학습 및 공간지각능력, 작업기역력 개발을 돕는 다채로운 놀이를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hys@



한국해양대는 해양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 인공지능(AI) 융합전공’ 4개를 대학원에 개설했다. /한국해양대

## 한국해양대,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스마트 해양융합 산업 이끌 인재 육성

한국해양대는 학문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해양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 인공지능(AI) 융합전공’ 4개를 대학원에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대학원에 공과대학과 해사대학 8개 학과가 참여한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친환경 스마트 해양융합 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했다.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과는 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자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조선기자재공학과와 해사대학 기관공학과, 기관시스템공학과이다.

4개 융합교육 과정은 신소재, 스마트전장, 친환경, 재해안전으로 학부과정의 스마트선박융합전공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비전공자 위한 교육용 코딩키트 제작

삼육대가 누구나 쉽게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용 키트를 자체 제작해 비전공자를 위한 ICT 융합 교육에 활용한다.

26일 삼육대에 따르면, 자체 제작한 교육용 키트는 ‘SU코딩키트 마이크로비트’(이하 마이크로비트 키트)와 ‘SU코딩키트 아두이노’(이하 아두이노 키트) 등 2종이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마이크로비트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각종 장치들을 삼육대의 융합교육과정에 맞게 리팩키징했다.

마이크로비트 키트는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스위치, 센서, 조이스틱 등 입력장치, LED, LCD, 릴레이, 스피커, 모터 등 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각종



삼육대 학생들이 SU코딩키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프로그래밍 기초 개념을 배우고 있다. /삼육대학교

부속장치를 레고 블록처럼 맞추는 블록 코딩 방법을 활용해 프로그램 코딩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아두이노 키트는 아두이노 보드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마이크로비트 키트를 통해 코딩의 기본 개념을 익힌 학생들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C언어를 배울 수 있는 키트다. /한용수 기자

## 김성웅 성균관대 교수 강자성 특성 자석 개발

성균관대는 김성웅 에너지과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강자성 특성을 가진 전자화물 자석 소재를 세계 최초로 합성하고 그 원리 규명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성웅 교수 연구팀은 2차원 층상구조의 층간의 빈 공간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면서 고유의 자기 모멘트를 갖는 격자간 음이온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 또한, 이러한 전자들이 층간에서 주변 양이온과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강자성 특성이 발현되는 2차원 전자화물 자석 소재(Gd2C)를 개발했다. /이현진 기자



## 숭실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속 선정

2년간 年 1억8000만원 지원

숭실대가 통일부 주관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실시된 이후, 유일하게 연속 선정된 사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확산해 대학 사회에 통일 의의를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

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숭실대는 통일부로부터 2년 간 연 1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숭실대는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통해 ▲필수교육형 ▲학과중심형 ▲연구중심형 ▲선택교육형 등 모든 통일 교육의 유형을 종합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본 모델의 확산을 통해 통일교육을 이끄는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